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신은선

전화 043-299-4381 / 팩스 0502-193-5204

보도자료

2020. 12. 30.(수)

제목

태국인 마약 밀수·유통 조직 3개 적발

- 총 27명 검거, 11명 구속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청주지방검찰청(형사3부)은 최근 국내에서 동남아 근로자를 중심으로 '마약류'의 확산세가 심각한 사실 확인하고 외국인 마약류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 '20. 1.~11. 충북 보은, 음성 등 산업단지에서 일하면서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수하고 유통한 태국인 마약조직 3개를 적발하여 총 27명을 검거, 그 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총 소매가 19억 3,800만 원 상당의 야바 3,410정(필로폰 성분 1,125g), 필로폰 510g* 및 마약 판매대금 2,553만 원을 압수하였음
* 약 17,000명 투약 분량
- 향후 수사권 조정 후에도 외국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 및 유통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I 수사 착수 배경

- 국내 외국인 마약류 범죄는 2016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2018년 이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의 '야바' 등 마약류 밀수량 급증

- 전국 외국인 마약류범죄 단속내역(명) [경찰 단속 포함]

국가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0월 기준)
미국	53	66	57	82	111	92
베트남	23	13	6	30	61	107
우즈베키스탄	17	23	25	23	84	57
중국	314	504	385	362	431	284
태국	122	242	315	302	551	637
기타	134	109	144	149	291	203
합계	640	957	932	948	1,529	1,380

- 전국 밀수입 국가별 '야바' 압수량(g)

국가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0월 기준)
태국	885	704	522	5,450	13,250	9,231
베트남	.	.	259	.	13	.
라오스	.	.	66	2,484	.	.
캄보디아	99	.	.	.	67	66
합계	984	704	847	7,934	13,330	9,297

- '야바'는 필로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내국인 상대로 유통·확산될 우려가 크고, 음성 등 도내 태국인 근로자들 사이에 야바 등 밀거래, 투약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18. 1.부터 태국인 마약 사범 집중 단속 실시

- ◆ '야바'는 태국에서 주로 유통·생산되는 필로폰 성분(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성분 등이 혼합된 합성마약으로 태국에서는 '말처럼 힘이 솟는 약'이라고 하여 'Horse medicine'으로 불리며 태국이 주요 산지 및 유통지임
- ◆ 정제 형태여서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쉽고, 열을 가해 연기를 흡입하거나,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 마시는 등 투약 방식이 간편하며, 복용 시 뇌에 도파민을 과도하게 생성하여 격한 흥분을 느끼게 하므로 공격적 성향, 피해망상 등을 일으켜 과격한 폭력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
- ◆ 유통구조는 밀수사범이 태국 현지로부터 1정당 약 1만 원선(300바트)에 밀수하여 중간판매상에게 5만 원선에 공급하고, 중간판매상은 이를 국내 투약자들에게 7~10만 원선에 재판매하는 형태

II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1. 충북 전역 대상 대규모 마약 밀수·판매조직(총 21명 입건, 12명 구속)
 - 합법채류자인 태국인 AOO(35세), BOO(30세), COO(21세)는 공모하여, '18.~'20.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밀수한 야바 4,297정(1,418g, 시가 3억 원)을 불법채류 근로자들에게 판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 태국인클럽, 공장 중심 마약 밀수·판매조직(총 3명 입건, 2명 구속)
 - 태국인 DOO(25세), EOO(33세)는 '20. 5.~8.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야바 1,402정 및 필로폰 17g을 밀수한 다음,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충북 진천, 음성 등에 있는 전용클럽 및 공장 등에서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1,402정(462g, 시가 9,800만 원), 필로폰 17g(시가 5,600만 원) 압수
3. 보은 시내 도박장 중심 마약 밀수·판매조직(총 10명 입건, 7명 구속)
 - 태국인 FOO(22세), GOO(26세), HOO(34세), IOO(27세)는 공모하여, '20. 2.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야바 1,937정 및 필로폰 333g을 밀수한 다음,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충북 보은, 음성 등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1,937정(639g, 시가 1억 3천 6백만 원), 필로폰 333g(시가 11억 1천만 원), 마약 판매대금 2,553만 원 압수

III

주요 수사경과

- '18.7.~'20.11. '야바' 등 밀수·매매사범 태국인 A, B, C 검거·구속 후 지속적인 단속 실시
- '20. 1.~11. 태국인 마약 밀수·판매조직 3개 적발하여 총 27명 검거, 구속기소 11명, 불구속 기소 5명, 기소중지(지명수배) 8명, 수사 중 3명
 - ※ '20. 1.~11. 내국인 포함 마약사범 총 85명 기소(검찰인지 35명, 경찰송치 50명)

IV

참고사항

- 청주지검은 2020년 단속을 비롯하여, '18. 1. ~ '20. 11. 태국인 마약조직 6개 적발하여 총 67명 검거, 그 중 구속 기소 32명, 불구속 기소 17명, 기소 중지(지명수배) 13명, 총 소매가 22억 6천만 원 상당의 야바 7,827정, 필로폰 515g, 대마 25.53g 및 마약판매대금 1억 4,923만 원을 압수하였음
- 3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마약사범 발생률이 증가 추세에 있는바, 향후에도 외국인 관련 마약 밀수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음☑

압수물 사진



[건강보조식품 통 속에 야바 은닉]



[야바 정제를 은닉한 캡슐]



[캡슐 속에 은닉한 야바 정제]



[필로폰]